

# 당뇨 특효 '참바늘버섯' 대량 생산

도 산림研, 신품종 국내 첫 개발… 건강보조식품 산업 육성

한국 특효가 탁월한 것으로 밝혀진 참바늘버섯(참버섯·시진)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신품종이 전남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최근 2년간 연구 끝에 기능성이 우수한 참버섯 균을 국내 자생지에서 순수분리해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도 산림연구소는 균주 특허와 신품종 보호 출원 등 지적소유권 확보에 나선 상태다.

충남대 의약품개발연구소와 함께 1년여 연구 끝에 참버섯의 항당뇨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지 1년3개월 만이다.

이번에 육성한 참버섯 신품종은 일본 품종에 비해 갓이 크고 두꺼우며, 은은한 버섯향이 진하고 생량 또한 우수한 것으로 조사돼 버섯 재배농가들의 고부가 신소득원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참버섯은 일본에서는 매우 흔한 식용버섯으로 맛과 향이 좋아 주로 야생채취에 의존해 예약판매되고 있을 뿐 농가 대량 재배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원도와 제주도 활엽수 고사목에서 가을에 드물게 채취되고 있다. 국내 기록은 1998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의 농사시

혈연구보고서에서 처음 소개됐고 2008년 식용버섯과 독버섯 원색도감인 '한국의 버섯'에 식용버섯으로 처음으로 분류된 바 있다.

도 산림연구소에서는 2009년부터 연구에 착수, 참버섯의 군사배양 특성과 인공재배 방법 등을 각종 학회에 논문으로 발표하고 그해 12월 특허출원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항당뇨 효과 연구를 통해 당뇨병 예방과 치료용 조성을 특허를 출원하는 등 한국산 참버섯 연구를 선도해왔다.

앞으로도 조선대 신현재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생리활성물질 탐색과 항혈전 효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약리효과를 추가 입증할 계획이다.

박화식 도 산림자원연구소장은 "참버섯의 다양한 기능을 계속 연구해 천연 건강보조식품으로 개발하고 이를 산업화해 농가소득은 물론 지역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영광 안마도해역 수로측량

25일부터 서해 해양사무소

서해 해양조사사무소는 어로활동과 해상 물동량 증가에 따른 선박의 안전함해를 지원하기 위해 25일부터 영광 안마도 남·동부 해역에 대해 정밀 수로측량을 실시한다.

수로측량은 해양 수심을 비롯해 지구자기, 중력, 지질의 측량과 해안선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측량을 포함한다.

안마도 부근 해역은 어로활동이 활발하고 해저 지형 변화가 심해 항해 선박의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심의 3~4배의 해저면을 한꺼번에 조사할 수 있는 멀티빔(Multi-beam) 음향 측Depth 기기를 이용, 수심이 얕은 암초, 침몰 선박 등 항해 위험 요소 등 해저 지형을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해저면 형상의 3차원 입체 분석, 해도 간행은 물론 국토해양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 해양조사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해안전을 위해 정밀한 수로측량과 다양한 해양정보수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 순천만 환경정비

순천시는 지난 20일 순천만 일원에서 11개 어촌계원 375명이 참여한 가운데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해안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해양쓰레기 60여t이 수거됐다. <순천시 제공>

## 전남 노인 10명 중 9명 노령연금 혜택

라 노인들의 소득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제도변경에 따른 서비스 누락을 막기 위해 지난달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시·군,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育을 실시한데 이어 지난 13일까지 10일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배재원 전남도 노인장애인과장은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인정액이 다소 초과돼 탈락된 노인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필수기자 bungy@

예자와 가석방된 노인에게도 연금 지급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연금 혜택자는 지난해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85.5%인 30만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31만3000여 명으로 90%를 넘어서 전망이다.

배재원 전남도 노인장애인과장은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인정액이 다소 초과돼 탈락된 노인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액이 노인단독가구 70만원에서 74만원으로 부부인 경우 112만원에서 118만4000원으로 하향 완화됐다. 7월부터는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금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전남도내 노인의 9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도 지난해 대비 6.5% 이상 노인인구의 85.5%인 30만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31만3000여 명으로 90%를 넘어서 전망이다.

지급액도 올랐다. 지난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단독수급자의 경우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는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금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전남도내 노인의 9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도 지난해 대비 6.5% 이상 노인인구의 85.5%인 30만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31만3000여 명으로 90%를 넘어서 전망이다.

지급액도 올랐다. 지난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단독수급자의 경우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는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금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전남도내 노인의 9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도 지난해 대비 6.5% 이상 노인인구의 85.5%인 30만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31만3000여 명으로 90%를 넘어서 전망이다.

지급액도 올랐다. 지난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단독수급자의 경우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는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금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전남도내 노인의 9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도 지난해 대비 6.5% 이상 노인인구의 85.5%인 30만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31만3000여 명으로 90%를 넘어서 전망이다.

지급액도 올랐다. 지난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단독수급자의 경우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는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금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전남도내 노인의 9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도 지난해 대비 6.5% 이상 노인인구의 85.5%인 30만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31만3000여 명으로 90%를 넘어서 전망이다.

지급액도 올랐다. 지난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단독수급자의 경우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는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금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전남도내 노인의 9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도 지난해 대비 6.5% 이상 노인인구의 85.5%인 30만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31만3000여 명으로 90%를 넘어서 전망이다.

지급액도 올랐다. 지난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단독수급자의 경우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는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금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전남도내 노인의 9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도 지난해 대비 6.5% 이상 노인인구의 85.5%인 30만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31만3000여 명으로 90%를 넘어서 전망이다.

지급액도 올랐다. 지난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단독수급자의 경우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는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금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전남도내 노인의 9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도 지난해 대비 6.5% 이상 노인인구의 85.5%인 30만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31만3000여 명으로 90%를 넘어서 전망이다.

지급액도 올랐다. 지난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단독수급자의 경우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는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금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전남도내 노인의 9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도 지난해 대비 6.5% 이상 노인인구의 85.5%인 30만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31만3000여 명으로 90%를 넘어서 전망이다.

지급액도 올랐다. 지난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단독수급자의 경우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는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금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전남도내 노인의 9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도 지난해 대비 6.5% 이상 노인인구의 85.5%인 30만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31만3000여 명으로 90%를 넘어서 전망이다.

지급액도 올랐다. 지난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단독수급자의 경우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는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금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전남도내 노인의 9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도 지난해 대비 6.5% 이상 노인인구의 85.5%인 30만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31만3000여 명으로 90%를 넘어서 전망이다.

지급액도 올랐다. 지난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단독수급자의 경우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는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금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전남도내 노인의 9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도 지난해 대비 6.5% 이상 노인인구의 85.5%인 30만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31만3000여 명으로 90%를 넘어서 전망이다.

지급액도 올랐다. 지난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단독수급자의 경우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는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금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전남도내 노인의 9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도 지난해 대비 6.5% 이상 노인인구의 85.5%인 30만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31만3000여 명으로 90%를 넘어서 전망이다.

지급액도 올랐다. 지난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단독수급자의 경우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는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금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전남도내 노인의 9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도 지난해 대비 6.5% 이상 노인인구의 85.5%인 30만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31만3000여 명으로 90%를 넘어서 전망이다.

지급액도 올랐다. 지난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단독수급자의 경우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는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금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전남도내 노인의 9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도 지난해 대비 6.5% 이상 노인인구의 85.5%인 30만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31만3000여 명으로 90%를 넘어서 전망이다.

지급액도 올랐다. 지난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단독수급자의 경우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는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금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전남도내 노인의 9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도 지난해 대비 6.5% 이상 노인인구의 85.5%인 30만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31만3000여 명으로 90%를 넘어서 전망이다.

지급액도 올랐다. 지난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단독수급자의 경우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는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금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전남도내 노인의 9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도 지난해 대비 6.5% 이상 노인인구의 85.5%인 30만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31만3000여 명으로 90%를 넘어서 전망이다.

지급액도 올랐다. 지난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단독수급자의 경우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는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금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전남도내 노인의 9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도 지난해 대비 6.5% 이상 노인인구의 85.5%인 30만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31만3000여 명으로 90%를 넘어서 전망이다.

지급액도 올랐다. 지난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단독수급자의 경우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는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금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전남도내 노인의 9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도 지난해 대비 6.5% 이상 노인인구의 85.5%인 30만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31만3000여 명으로 90%를 넘어서 전망이다.

지급액도 올랐다. 지난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단독수급자의 경우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는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금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전남도내 노인의 9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